

한경훈

변리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변리사

상표법

판례강의

* 강의 목표

- 사실관계 도식화 - 판례의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 사건 히스토리 - 대법원·하급심의 쟁점을 묶어서 정리하기
- 사안포섭 방법론 - 판례를 통해 답안의 사안포섭 방법 배우기

일 정

2025. 9. 22.(월) ~ 10. 1.(수), 오전, 오후, 월/수/금 강의, 총10회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30분 ~ 저녁 6시 30분

교 재

- 데생 상표법_선(저자, 제5판, 출간예정)
- 보충자료(제공)

강 사 소 개

- 월비스 1차 및 2차 상표법 전임
- 수석, 최연소 등 다수의 합격생 배출
- 데생상표법 시리즈 저자
(데생상표법 잠·산·면·피날레, 데생상표법 도슨트)

공 지 사 항

- TRADE-RUN 진행 (별도 공지)
- 복습용 자료 제공

한경훈 변리사 강의계획서

상표법 판례강의

강의 특징

사실관계 도식화, 판례의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실체법적 요소가 많은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들, 출원/등록/사용 관계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각 주체 및 시간 흐름으로 정리한 도식화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합니다.

사건 히스토리, 대법원·하급심의 쟁점을 묶어서 정리하기

최근 판례형 문제의 출제경향을 보면, 상고심 쟁점은 물론이고,

원심 및 환송 후 하급심에서만 다뤄진 쟁점을 함께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상고심 법리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히스토리”를 정리함으로써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합니다.

사안포섭 방법론, 판례를 통해 답안의 사안포섭 방법 배우기

상표법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목차”와 “사안포섭”입니다.

좋은 목차를 잡는 능력은 개념의 주소 설정, 연역적 사고를 통해 키울 수 있으나,

사안포섭을 잘 하는 능력은 “판례의 법리적용”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적용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느껴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정	강의 내용
1	9/22(월) 오전	OT, ~ LINE18 (리엔)
2	9/22(월) 오후	~ LINE38 (NINA RICCI)
3	9/24(수) 오전	~ LINE54 (Jazz)
4	9/24(수) 오후	~ LINE75 (한솔)
5	9/26(금) 오전	~ LINE92 (소녀시대)
6	9/26(금) 오후	~ LINE112 (동서가구)
7	9/29(월) 오전	~ LINE129 (사임당가구)
8	9/29(월) 오후	~ LINE151 (ANDRE)
9	10/1(수) 오전	~ LINE169 (CARLiFE)
10	10/1(수) 오후	~ LINE191 (비비안 웨스트 우드)